배움의 효과는 무엇인가?

06

What are the effects of learning?

이 장은 배움의 효과를 소개한다. 최종적으로 성현이 되는 일이지만,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효과가 있다.

人皆可以爲堯舜 豈欺我哉

◁격몽요결▷

(맹자께서) "사람은 모두 요순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 셨으니, 어찌 우리를 속이셨겠는가?

(Mencius said), "Everyone can become like Yao and Shun." How could be have deceived us?

*可以: ~할 수 있다 *爲: 되다

*堯舜: 요임금과 순임금 * 造: 어찌

*欺: 속이다 *我: 나

*哉: 의문문과 감탄문 뒤에 붙는 어조사

해설

잘 배운 결과 성인이 된다는 말이다.

본문의 "사람은 모두 요순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맹자의 말이고, "어찌 우리를 속이셨겠는가"는 옛날 자주 썼던 말투로, 여기서는 선생의 말이다.

흔히 유학자들은 공자를 배워서 성인이 된 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학은 기독교와 달리 보통 사람도 열심 히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맹자』에 보면 공자의 제자 안회가 "순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순처럼 행동하면 순처럼 된다"라고 한 말도 소개하고 있다.

교육 이론에서 보면 배움의 기능성 긍정 또는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進則爲聖爲賢 退則爲愚爲不肖

◁성학집요▷

나아가면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되지만, 뒤로 물러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못난 자가 된다.

If you move forward, you become a saint or a sage, but if you step back, you become a stupid or foolish person. *進: 앞으로 나아가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 ~하면 ~하다

*爲: 되다 *聖: 성인

*暋: 혀인 *珢: 뒤로 물러나다

*愚: 어리석은 사람

*不肖: 못난 사람, 원래는 어버이를 닮지 않은 사람

해설

꾸준히 배운 결과 성인이나 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동양적 사유는 서양 종교처럼 신의 은총이 아니라 공부해서 성인이 되거나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유학은 물론이요, 불교나 도가철학도 그렇다.

그러니 배움 곧 공부는 그만큼 중요하다. 유학을 단순히 윤리·도덕과 예법 그리고 통치 수단만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궁극의 목표는 이런 배움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데에 있다.

중단없는 학습과 노력의 결과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聖人之徳 與天爲一 神妙不測

⊲성학집요▷

성인의 덕은 하늘과 하나가 된 것이니 그 신묘함을 헤아릴 수 없다.

A sage's virtue is like the Heaven, and its spiritual power is unfathomable. *聖人: 성인 *之: ~의

*德: 덕 *與: ~와, ~함께

*天: 하늘 *爲: 이다

*一: 하나, 같다 *神妙: 신기하고 묘함

*不測: 헤아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해설

배움의 목표인 성인의 덕을 묘사하였다.

잘 배운 효과는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덕 또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자연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신묘한 작용처럼!

이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떠들지도 내세우지도 않는다. 『노자』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보통 사람은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없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이니, 자기의 덕이 높아야 성인을 알이볼 수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해야 한다.

聖人無私 故德合乎天地焉 君子去私 故行合乎聖人焉

◁성학집요▷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덕이 천지와 부합한다. 군 자는 사사로움을 없애므로 행실이 성인의 그것에 부합 한다.

Since the sage is not selfish, his virtue is harmony with Heaven and Earth. Since the Superior Man gets rid of selfishness, his conduct conforms to that of a saint.

*無: 없다 *私; 사사로움

*故: 그러므로 *徳: 덕

*合: 합하다, 하나가 되다 *乎: ~에

*焉: 어조사 *君子: 덕행이 높은 사람

*去: 제거하다, 없애다 *行: 행동, 행실

해설

배워서 성인과 군자가 되었을 때의 경지를 말했다. 성인의 덕이 하늘 땅과 같다는 말은 자연이 말없이 만물을 낳고 길러주듯 성인은 사적인 욕심이 없어 말없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열심히 노력하여 사적인 욕심을 버려서 그 행동이 성인의 그것에 부합한다는 뜻이 다. 거꾸로 말해 사람이 잘 배워서 자연이 하는 일처럼 그 덕을 향상하면, 성인이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배운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되기는커녕 되레 남을 해치면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 많이 배웠다고 또는 학력이 높다고 반드시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治私之術 惟學而已 學進則量進

◁성학집요▷

사사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배움뿐이다. 배움이 진보하면 도량도 진보한다.

The only way to correct one's selfishness is through learning. As learning progresses, virtue also progresses.

*治: **다스리다**, 바로잡다 *私: **사사로움**

*之: ~의 *術: 방법, 꾀

*惟: 오직 *而已: ~일 뿐이다

*進: 나아가다, 진보하다 *則: ~하면 ~하다의 접속사

*量: 양, 여기서는 문맥상 德量을 말함

해설

배움의 효과를 말하였다.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움이요, 덕량을 넓히는 일도 그 진보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원문 사(私)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말이다. '사적인' '개인적인'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존중받 는다. 하지만 선생이 말한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과 관련됨을 말한다. 특히 임금과 같은 리더 의 사사로움을 경계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일이 존중받지만, 리더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성학집요▷

힘쓰는 노력이 지극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앎과 실천을 아울러 갖추어 힘을 다하면, 겉 과 속이 하나같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If you put in a lot of effort, it will definitely work. So if you equip yourself with both knowledge and practice, and do your best, you will enter the state of a saint, as your heart and attitude are one.

*用功: **힘쓰다**, 노력하다 *至: 지극하다

*必有: 반드시 ~이 있다 *效驗: 효험, 효과

*以: ~함으로써, ~으로써 *盡: 다하다

*知行: 앎과 행동(실천) *兼備: 함께 갖추다

*表裏: 속마음과 겉모습 *如一: 하나같다

*入: 들어가다 *乎: ~에

*聖域: 성인의 경지 *牀: 모습, 상태

해설

열심히 배운 효과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효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 공부의 방법은 앎과 실천을 아울러야 한다는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 공부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점이다.

『논어』에서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고 힘이 남아돌면 글공부하라는 정신과 통한다. 전통적 배움이 실천하는 행동과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 결과 겉과 속, 곧 머릿속에서 아는 내용과 행동하는 태도가 일치한다. 지식을 쌓는 일 못지않게 배움을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다. 앏과 실천은 배움의 두 날개이다.

當行之道 曉然在前 可以進步

⊲격몽요결▷

마땅히 가야 할 길이 환하게 앞에 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The Way we should go is brightly in front of us, so we can move forward.

*當: 마땅히 ~해야 한다 *行: 가다, 실천하다

*道: 길, 도리 * 曉然: 환하게

*在前: 앞에 있다 *可以: ~할 수 있다

*進: 앞으로 나아가다 *步: 걸음, 걷다

해설

「독서장」에서 말하는 배움의 방법으로서 독서의 효과이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도리를 말한다. 성인의 가르침이 실린 책을 읽으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사실 독서의 효과는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 물음에도 종류가 많은데, 인생의 화두처럼 근본적 물음일수록 깊은 답을 얻는다. 물론 잘 묻는 사람만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 물음 속에 이미 절반 이상의 답을 갖추고 있으니까.

고전 속의 위인이나 성인들은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사람이 묻지 않을 뿌이다.

君子 憂道 不當憂貧

◁격몽요결▷

군자는 도리를 걱정해야지 가난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A Superior Man should worry about the Way, not worry about poverty.

*君子: 군자

*憂: 근심하다. 걱정하다

*道: 길, 도리

*貧: 가난(하다)

*不當: 마땅하지 않다, ~하면 안 된다

해설

군자의 품격으로서 배움의 효과를 말하였다.

군자라는 말에는 여러 뜻이 있다. 여기서는 학식과 덕을 이룬 사람을 뜻한다. 『논어』에 자주 등장하며 소인과 대비되는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배움을 어느 정도 완성한 사람을 가리킨다.

선생의 이 말은 진정한 군자라면 세상을 근심해도 개인의 가난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비의 '우환(憂患) 의식'이라 한다. 곧 공동체가 잘못되지 않는지, 백성이 잘시는지, 세상이 정의로운지 걱정하는 일이다.

이 말은 군자가 꼭 가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구차한 짓 따위는 하지 말라는 말과 통한다. 하물며 가난이 아닌 사익(私益)이랴.